

2011년 제 5 회 삿포르 컬렉션

홋카이도 최대 규모의 패션 페스티벌인 '삿포르 컬렉션'이 지난 5월 29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 5회 짝을 맞이한 이 행사에는 매년 꾸준히 입장객이 늘어 지금까지 최대 입장객수인 9600명이 삿포르 컬렉션 행사장을 찾아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삿포르를 패션의 거리로'라는 테마로 과거 최대인 21개 브랜드가 올 시즌 패션을 선보였고, 게스트 모델로는 홋카이도 출신의 가수인 후지모토 미키, 사토다 마이 그리고 모델 아오야마 레이나 등이 화려하게 런웨이를 장식했습니다. 그 밖에도 젊은 여성들에게 카리스마적인 존재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츠치야 안나와 니시노 카나 등의 라이브 무대도 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성금을 위해 디자이너들이 만든 티셔츠와 배우들의 소장품 경매 등의 자선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사진제공 - 삿포르 컬렉션 실행위원회>



삿포르 컬렉션 회장을 찾은 서울시 패션 관계자와 홋카이도-서울 패션 교류회 위원들

삿포르 컬렉션은 세계철이 아름다운 북쪽의 대지 홋카이도만이 창조해 낼 수 있는 패션 문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4년 전 처음 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도쿄 걸즈 컬렉션처럼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처음 개최된 지 불과 4년 만에 일본 국내에서는 패션피플들에게 사랑받는 컬렉션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홋카이도는 작년 10월 서울 특별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을 기념한 패션 교류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의 패션 관계자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 회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매년 2회 '서울패션워크'라 하여 패션쇼와 패션페어, 해외패션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패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 패션 관계자 홋카이도청 방문

홋카이도와 서울시의 패션 교류의 일환으로 삿포르 컬렉션에 참석하기 위해 홋카이도를 찾은 서울 산업통상진흥원 서울패션센터 김은호 대리, 오렌지웨이브 유용범 대표이사, 홋카이도-서울 패션교류 위원회 김일석 대표 등 9명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서울패션워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서울의 컬렉션 때에도 홋카이도에서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내년 삿포르 컬렉션에는 한국부스를 내는 등 더욱 많은 이들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홋카이도측은 한국은 패션에 있어 소재나 물건, 가격적인 면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곳인 만큼 홋카이도에도 더욱 더 PR 해 주기를 바라며, 서울패션워크에도 꼭 참가해 홋카이도와 서울의 패션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홋카이도 벚꽃놀이는 뭔가 특별하다?!



삿포르 마루야마 공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 바베큐

일본의 벚꽃놀이는 흔히 벚꽃나무 아래 돛자리를 깔고 준비해 온 도시락과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홋카이도는 그것과는 다른 이곳만의 벚꽃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홋카이도의 명물인 징기스칸(양고기) 바베큐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 봄임에도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떨면서 즐기는 징기스칸. 이게 없다면 홋카이도에서의 벚꽃놀이는 단팥없는 전갱이 될 만큼 그 매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벚꽃과 징기스칸,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삿포르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다키카와시(滝川)가 벚꽃놀이 징기스칸의 발상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1956년 다키카와에서 창업한 (주)마쓰오 징기스칸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 가게 근처에는 다키카와 공원이 있어서 벚꽃놀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징기스칸을 팔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공원에서 징기스칸을 구워 먹으라고 시킨 바, 그 냄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했고 그곳에서 불판을 대어하며 고기를 팔았더니 순식간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1956년은 삿포르-다키카와 간 철도가 복선화 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키카와의 벚꽃놀이 문화가 철도를 타고 삿포르를 비롯한 홋카이도 전역에 퍼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사키지상 (花咲じいさん)

일본의 민화 중 하나인 '하나사키지상'은 말 그대로 꽃을 피우는 할아버지입니다. 벚꽃놀이의 명소인 삿포르 마루야마공원에는 벚꽃 시즌에 하나사키지상 모습을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사키지상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부와 놀부'같은 권선징악의 내용입니다.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버려진 강아지를 주워다 키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홍부와 놀부의 제비가 강아지인 셈입니다.

할아버지 꿈 속에 강아지가 나타나 마른 벚꽃에 재를 뿌리라 하여 그대로 하자 벚꽃나무는 만개하고 매마침 그곳을 지나던 군수가 만개한 벚꽃나무를 보고 감동하여 노부부에게 상을 하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사키지상이 벚꽃놀이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절모습부터 심상치 않은 하나사키지상

2008년 G8 정상회담 개최지 **도야코 호수**

북쪽으로는 요테이잔 산(羊蹄山), 남쪽으로는 우스잔 산(有珠山)과 쇼와신잔 산(昭和新山)을 끼고 잔잔히 흐르고 있는 도야코 호수. 이곳은 그 빼어난 경치를 인정받아 2008년 G8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도야코 호수는 홋카이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약 10만년 전 최종간빙기에 수차례의 분화를 거쳐 형성된 칼데라호수입니다. 마지막 대규모 분화에 의한 화산재는 홋카이도 동북에 걸쳐 넓은 범위의 지층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총 둘레 50km, 최대 수심 180m, 면적은 약 70.7km²로 칼데라호수 중에서는 굿샤로코(屈斜路湖) 호수와 시코쓰코(支笏湖) 호수에 이어 3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호수의 중앙에는 4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중 오시마 섬에는 야생사슴이 서식하기도 합니다.

봄의 도야코는 화려하게 핀 매화나무의 자태가 보는 사람들을 절로 기쁘게 해 주며, 여름에는 보트와 서핑 등의 여름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가을은 단풍과 호수가 어우러진 절경을 선사해 주며,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 겨울의 도야코는 잔잔히 흐르며 새 봄을 준비합니다.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 그 다섯번째 이야기

시리베시(後志) 지역

❁ **오타루 항구와 방파제 - 오타루(小樽)**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의 방파제를 참고로 한 경사블록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오타루 항은 홋카이도의 현관문이자 물류거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샤코탄반도와 가무이 꽃 - 샤코탄(積丹)**
샤코탄 반도는 그 옛날 청어잡이의 큰 어장으로 발달하였으며 험준하게 솟은 벼랑과 가무이 꽃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 **닛카위스키 증류소 - 요이치(余市)**
위스키를 만들기에 좋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 요이치에 1936년 위스키 제조가 시작된 이래 지금도 당시와 같은 제조법으로 위스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 **교고쿠 샘플 - 교고쿠(京極)**
홋카이도의 후지산인 '요테이잔 산'에 내린 비와 눈이 녹아 여파되고 땅 속의 미네랄이 첨가된, 50~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흘러나오는 샘플입니다.



❁ **스키와 니세코 연봉 - 니세코**
겨울이 긴 홋카이도의 대표 스포츠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니세코 연봉의 스키장은 오랜시간 사랑받아 온 스키장입니다.

❁ **최북단 너도밤나무 숲 - 구로마쓰나이(黒松内)**
너도밤나무는 온대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로 홋카이도에서는 이곳에만 분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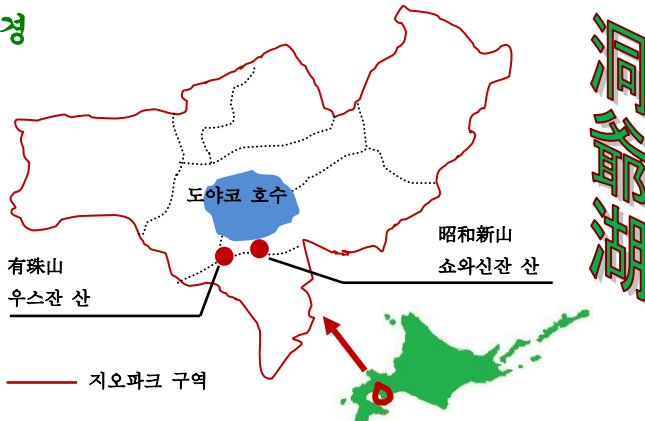
사진제공-홋카이도 유산 협의회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

도야코의 사계



봄 (春)



洞爺湖



여름 (夏)



가을 (秋)



겨울 (冬)

Long~run 불꽃놀이



< 2011.4/28~10/31 >

도야코 호수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불꽃놀이는 매일 밤 20분간 열립니다. 유람선을 타거나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노천온천에서 즐기는 불꽃놀이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환상 그 자체입니다.

변동하는 대지

도야코 우스잔 지오파크

2009년 8월 '도야코 우스잔 지오파크'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지오파크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야코 호수와 약 2만년 전부터 분화를 반복하고 있는 우스잔 산 등의 지질 유산, 웅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유산, 조문 유적을 비롯한 역사유적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경관 등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스잔 산은 7-8천년 전 산체의 붕괴가 있는 후 에도시대까지는 잠잠하다가 1663년 분화가 다시 시작된 후 2000년까지 9번의 분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스잔 산은 때로는 재해를 초래하는 화산이지만 온천과 농작물, 아름다운